

한국체육정책학회지, 2020. 8, 제18권, 제3호, pp. 77~91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2020. 8, Vol. 18, No. 3, pp. 77~91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지각이 선수스트레스 및 운동 몰입과 진로변경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성덕(백석대학교 교수) · 최영준*(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직업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이며 동시에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기회이다. 그러므로 생애에 있어 직업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김성덕, 2019). 또한 경력은 개인이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획득하는 경험 및 활동으로 과거와 현재가 연속되어 미래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주므로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더욱이 전문체육 학생선수는 어린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여, 학업보다는 본인의 운동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다른 직업군에 비해 일관된 경력을 내포한다. 특히 전문 운동선수는 다른 직업들에 비해 더 빠르게 직업 전환문제를 당면하는데 그 이유는 부상, 진학좌절, 운동능력 감소, 슬럼프 등 개인마다

상이하다(Taylor & Wilson, 2005). 대다수 운동 선수는 현재 자신의 운동성과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자신의 운동성과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준비한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뛰어난 기량의 선수라도 은퇴 즉 경력의 전환(Career Transition)은 피할 수 없어 어느 순간이 되면 선수의 경력은 정체된다. 문제는 이러한 불가피한 경력정체를 선수가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운동선수로서의 은퇴를 사회적 은퇴로 인식하는 것에 있다(Rosenberg, 1982). 따라서 운동선수가 갑자기 새로운 경력으로 직면할 때 준비가 부족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운동선수로서의 삶에서 변화되는 자신의 생애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경력정체는 실제로 관찰 가능한 사실관계의 객관적 유형과 개인이 느끼는 감정 혹은 태도 등의 주관적 유형으로 분류되고, 생애사적으로는 내용 및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나뉜다. 그러나 운동선수의 경력정체는 일반 직업군과 달리 긴박한 경기와 승패에 대한 부담감, 부상노출로 인한 불안감과 같은 심

핵심어: 대학운동선수, 경력정체, 스트레스, 운동 몰입, 진로변경의도

* e-mail: cj@bufs.ac.kr

리적인 영향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운동선수와 관련된 경력정체는 관리차원보다 오히려 선수 은퇴, 진로전환 등과 같은 직업전환 차원에서 스포츠심리학 혹은 스포츠사회학적으로 접근되었다(최재섭, 2014). 그러나 선수 개인이 당면한 소위 정체된 운동기량의 감소, 전문성 상실 등과 같은 현상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대학 운동부 차원으로 확산되고, 소속된 운동부의 분위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선수의 경력도 개인을 넘어 운동부나 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나 운동선수의 생활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경력정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다수 조직분야의 연구, 인적자원측면의 연구 분야가 주를 이룬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종사자의 경력정체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저하시키고 이직을 초래하고(이병관, 2008), 특히 구조적인 경력정체 이외 내용적 경력정체가 부정적 직무태도와 과업행동에 영향을 주며(장경로, 김태희, 2009), 이는 체육단체(서재하, 2012; 최진혁, 2012) 종사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 부정적인 조직 행동을 유발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인적자원 중심 기업의 성패는 조직원의 합리적인 경력관리와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유기적으로 관리될 때 보다 더 발전적일 수 있다. 운동선수도 자신의 운동 기량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다른 새로운 기술을 습득 혹은 개발하거나 팀에서 책임 있는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선수의 경력이 조직 내에서 정체된다면, 발전적이고 적극적이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전문 운동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운동 기량, 운동성과가 어느 시점에

서 머물러 있거나 발전적이지 못할 때, 혹은 팀이나 운동부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예전과 같지 않을 때 선수는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상황, 운동부 관계, 개인적 성과 등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이는 중·고등학생부터 성인 선수, 국가대표에 이르기까지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김덕진, 2009; 김미선, 정지혜, 양희연, 2014; 이순표, 김영수, 이상돈, 2008). 결국 선수가 자신의 경기력과 관련된 부족한 상황대처와 기량부족은 선수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더욱이 학생선수의 경우 자신의 향후 진로 분야에 더욱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결국 자신에게 집중하여 최고의 성과를 창출해야 함에도 자신의 부족해진 기량, 경쟁구도에서의 어려움, 팀 내의 역할 감소는 운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는 곧 선수가 자신의 운동에 몰입하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경기력이 저하될 수 있다.

한편, 선수가 자신의 직무에 해당되는 운동수행을 포기하고 은퇴를 고민한다는 것은 다양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파생됨을 의미한다. 더욱이 선수가 자신이 직무에서 이탈하는 것이 팀을 옮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삶이 곧 운동선수의 삶이기 때문에 다른 진로방향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태로 운동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현재 운동수행에 있어 치명적인 부상이 있거나 일신상의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파생되는 것으로 직장을 변경하는 이직을 넘어, 새로운 진로에 진입해야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한편, 서비스조직과 전문 인력으로 평가되는

간호사, 항공사 승무원 등의 직종의 경력정체가 직무의 어려움과 경력관리, 이직과 같이 선행된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으나(김유미, 강영실, 2013; 박혜영, 2014), 본 연구처럼 운동선수에 대한 경력정체와 선수의 반응행동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후무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수가 운동을 중단하거나 선수 은퇴 이전의 자신의 운동기량 등에 대한 경력정체를 지각하는 것이 선수의 스트레스 및 운동 몰입, 나아가 운동선수로서의 삶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하는 의도 여부를 구명하여 선수 개인의 경력정체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운동부 운영의 안정성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1) 선수의 경력정체지각과 운동스트레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양하나 대개 구성원이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개선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손미혜, 2013). 특히 대학 운동선수가 자신의 기량 부족과 낮은 운동수행능력을 느끼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더욱이 이러한 현상이 출전 기회 감소로 이어지면 선수의 스트레스는 부가된다. 특히 연습과 시합의 부담을 넘어, 학업 및 진로걱정 등으로 스트레스가 확산되고(김덕진, 2009), 이와 같은 스트레스의 지속은 운동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김범준, 2016), 결국 스트레스가 자신의 기량에 높게 관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운동수행과 관련되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개선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더욱 과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지각은 선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선수의 경력정체지각과 운동몰입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서 경력정체지각이 높은 경우 일에 대한 흥미와 열정은 떨어지고(고정아, 김희영, 2018), 결국 개인의 성장 정체감과 상대적 박탈감까지 이르게 된다(곽대영, 2013). 반면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감, 책임감과 도전감이 충분하다는 것은 자신의 직무에 몰입한다는 것으로 이는 구성원의 경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보상이 수행될 때 가능성이 강조되었다(홍아정, 2017). 따라서 경력정체는 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된다. 운동선수는 자신의 훈련이나 시합상황에 집중할 때 도전감, 만족감을 얻게 되므로 운동선수의 경력관리 역시 역설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지각은 운동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선수의 경력정체지각과 진로변경의도

Gooley(2001)는 종업원이 조직에서 이직하는 이유로 기업과 종업원의 잘못된 이해와 결여된 소속감을 이야기하며, 조직과 개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조직이 개인 경력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구성원을 이탈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성원이 조직에서 이탈 하는 것은 조직에서 더 이상 어떤 기대를 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거나

혹은 비슷한 수준이면 조직을 옮길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학 운동선수는 운동에 집중하고 전념하여 그 성과로 희망 팀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직의도라는 개념보다는 자신의 성과와 역량을 고려한 진로방향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의도를 의미한다. 선수입장에서 경력이 정체되는 부상의 경우, 팀 내 역할 상실, 소외감은 선수를 위축시켜 심리적 제약을 준다는 관점에서 운동선수의 경력정체는 선수의 진로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지각은 진로 변경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선수의 운동스트레스, 몰입과 진로변경의도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조직에 부정적 태도를 유발하고(김형일, 2017), 반면 자신의 직무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인식하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전문 운동선수를 목표로 운동수행에 집중하는 대학 운동선수가 자신의 시합, 훈련 및 운동부 생활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반 조직학에서 나타나는 이직의도와 유사하게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반면 선수가 시합상황, 훈련과정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운동기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보다 높은 성과로 자신의 희망하는 진로방향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운동에 몰입하면 진로변경보다는 진로를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되는데 이상의 이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 대학 운동선수의 선수스트레스와 운동 몰입은 진로변경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기준 대한체육회에 선수 등록된 학생선수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3월~5월까지 대학생 운동선수를 집중 육성하는 3곳의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의뢰하였다.

표집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총 340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동일한 문항으로 표기하는 등의 불성실한 자료 34부를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성별은 남학생 138명(44.2%), 여학생 174명(55.8%), 학년별로는 1학년 119명(38.1%), 2학년 96명(30.8%), 3학년 73명(23.4%), 4학년 24명(7.7%)이었고, 운동경력은 5년~10년 미만이 188명(60.3%)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107명(34.3%), 5년 미만이 17명(5.4%)순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운동선수로 활동함을 알 수 있다. 입상수준은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이 201명(64.4%)이고, 국제대회 3위 이상 입상도 68명(21.8%)로 나타나 상당수준의 경기력을 보유함을 확인하였고 기타광역시 및 소도시대회 입상도 16명(5.1%)인 반면, 입상경험이 없는 경우는 24명(7.7%)에 불과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312)

변인	내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138	44.2
	여학생	174	55.8
학년	1학년	119	38.1
	2학년	96	30.8
	3학년	73	23.4
	4학년	24	7.7
운동 경력 (기간)	5년 미만	17	5.4
	5~10년 미만	188	60.3
	10년 이상	107	34.3
입상수준 (최근 3년 이내 최고 실적)	입상경험 없음	24	7.7
	중소, 광역시도 대회 3위이상 입상	16	5.1
	전국대회 3위이상 입상	201	64.4
	국제대회 3위이상 입상	68	21.8
주요종목	유도	48	15.4
	체조(기계)	23	7.4
	태권도	23	7.4
	골프	20	6.4
	테니스	19	6.1
	수영(수구)	18	5.7
	배드민턴, 역도, 조정카누, 핸드볼	각 16명	각 5.1
	사이클(13), 사격(13), 노코멘트(12), 볼링(10), 근대5종(9), 양궁(7), 육상(7), 체조(5), 야구(5), 씨름(4), 레슬링(4), 빙상(4), 복싱(3), 펜싱(3), 농구(1), 축구(1)		31.2

끝으로 조사 종목의 경우 유도, 체조, 골프, 태권도 선수들이 20명 이상이고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조사되었다.

2. 조사도구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6문항, 학생운동선수의 경력정체 인식 10문항, 운동수행 태도와 관련하여 선수스트레스 18문항, 운동몰입 5문항, 진로(진학)변경 의도 4문항으로 총 42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 Likert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1) 경력정체

경력정체는 개인이 소속된 집단에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열망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급에 대한 기대나 혹은 불안으로 대표된다(Tremblay & Roger, 1993).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조직의 경력정체를 2개의 하위요소로 구분한 최진혁(2012)의 연구를 토대로 “운동부에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는 구조적 정체와 “운동수행을 위해 새로운 역량을 확장시켜야 한다” 는 내용적 정체로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해당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843~.915로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2) 선수스트레스

선수스트레스는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 요인들의 부조화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도록 심리적 역기능을 유발하는 상태라고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 김범준(2016)의 측정도구를 토대로 시합관련, 운동수행, 사회환경 및 선수지원의 4개의 차원 18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해당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786~.913로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3) 운동 몰입

운동 몰입은 운동선수가 훈련이나 시합이라는 직무를 수행함에 해당 운동부나 팀에 몰입한다는 의미에서 조직몰입과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다(Allen & Meyer, 1990). 본 연구에서는 서원식, 김성덕(2015)의 연구를 토대로 학생운동선수가 운동수행(훈련, 시합 등)시 운동부와 팀에 대한 애착 및 소속감을 측정하고자 5개의 단일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고 해당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835로 나타났다.

4) 진로변경의도

진로변경의도는 김성덕(2018)의 연구에서 종사자가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나 타 조직으로 이직하려는 이직의도를 운동선수가 팀이나 소속 운동부에서 다른 팀으로 이동 혹은 운동을 그만두고자 하는 의도로 수정·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운동선수는 이직 등의 전학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운동선수 중단, 혹은 다른 형태의 진로선택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변경의도로 수정하였다. 4개 문항으로 측정된 진로변경의도의 Cronbach's α 값은 .870으로 나타났다.

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설문지를 4년제 대학의 체육학과 교수 2명(스포츠교육학1인, 스포츠경영학1인)이 협의하여 조사대상의

현상을 탐색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문헌의 측정도구를 고찰하여 실제 측정 문항의 내용 적합성 및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상의 논의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 조사 및 수집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된 측정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경력정체지각의 내용적 정체 .765~.917, 구조적 정체 .841~.906, 선수스트레스 .672~.796, 운동몰입 .806~.902, 진로변경의도 .827~.894로 나타나 모든 요인이 기준치를 충족시킴을 확인하였다(Kline, 1998).

또한 모든 차원의 개념 신뢰도 값은 .767~.862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을 확보했고, 산출된 분산 추출지수(AVE)값도 .539~.724로 제시되어 집중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김계수, 2007). 변인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기준으로 $\chi^2=399.885(df=142, p=.000)$ 로 부적합하지만,

표 2. 확인적 요인분석의 표준화계수와 유의수준

차원	문항	표준화계수	t값	Sig.	개념신뢰도	AVE	
경력 정체	구조적 정체	1					
		4	.841	11.693	.000	.801	.623
		5	.906	11.743	.000		
	내용적 정체	1					
		2	.894	17.930	.000		
3		.917	19.261	.000			
4		.891	18.991	.000			
	5	.765	12.699	.000			
선수 스트레스	운동ST	.796	9.585	.000	.767	.539	
	시합ST	.672	11.252	.000			
	지원ST	.767	12.725	.000			
운동 몰입	1				.834	.669	
	4	.806	12.468	.000			
	5	.902	16.585	.000			
진로변경 의도	1				.834	.619	
	2	.827	18.295	.000			
	3	.894	20.857	.000			
	4	.856	19.391	.000			

전체 $\chi^2=399.885$ $df=142$ $p=.000$, TLI=.923, CFI=.936, RMSEA=.076, SRMR=.084

* $p<.05$, ** $p<.01$, *** $p<.001$

TLI=.928, CFI=.936, RMSEA=.076, SRMR=.084로 적합도 지수 값이 권장 또는 최적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적합도를 확보했다(홍세희, 2001).

4.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지 내용을 설명하고, 조사의 협조를 구한 뒤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응답하게 하였고, 응답된 자료는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회수자료 중 설문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자료를 제외시킨 후 윈도우용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20.0 version으로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했고, AMOS 20.0 version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변인과의 상관관계

각 척도들에 대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한 결과, <표 3>과 같이 경력정체의 구조 및 내용적 정체는 선수스트레스, 진로변경의도에서 95% 신뢰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선수의 운동 몰입 요인에서는 95% 신뢰 수준에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모든 상관계수들이 .8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되었다(김계수, 2007).

표 3.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 스트레스, 운동몰입 및 진로변경의도의 상관관계

	1	2	3	4	5
구조적 정체 ¹	.623 ^{a)}				
내용적정체 ²	.489*	.724 ^{a)}			
선수스트레스 ³	.402**	.125*	.539 ^{a)}		
운동몰입 ⁴	-.413**	-.611**	-.072	.669 ^{a)}	
진로변경의도 ⁵	.615**	.396**	.454**	-.500**	.619 ^{a)}

* $p < .05$, ** $p < .01$ 각 요인의 평균분산추출지수

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지각이 선수스트레스, 운동 몰입 및 진로변경 의도와의 관계를 구성하는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이 $\chi^2=401.962(df=143, p=.000)$ 로 나타났고, TLI=.923, CFI=.936, RMSEA=.076, SRMR=.085로 본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Tucker와 Lewis(1973)는 TLI, CFI 값이 .90 이상이면 적합지수가 좋은 편이라 하였고, Browne과 Cudeck(1993)은 RMSEA 값이 .05~.08 이면 적당한 적합도, .10 이상이면 부적합지수라 하여 적합도를 확보하였다.

표 4.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과

χ^2	df	p	TLI	CFI	RMSEA	SRMR
401.962	143	.000	.923	.936	.076	.086

3. 가설 검증

<표 5>는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대학 운동선수의 구조적 경력정체 지각과 선수스트레스는 경로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eta=.576, t=6.762$) “구조적 경력정체지각

표 5. 가설검정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t)값	Sig(p)	검증
H1-1	구조적경력정체 → 선수스트레스	.576	.063	6.762	.000	채택
H1-2	내용적경력정체 → 선수스트레스	-.095	.077	-1.301	.191	기각
H2-1	구조적경력정체 → 운동 몰입	-.561	.063	-3.034	.002	채택
H2-2	내용적경력정체 → 운동 몰입	-.192	.067	-8.100	.000	채택
H3-1	구조적경력정체 → 진로변경의도	.342	.086	4.916	.000	채택
H3-2	내용적경력정체 → 진로변경의도	-.092	.078	-1.464	.143	기각
H4-1	선수스트레스 → 진로변경의도	.371	.081	6.239	.000	채택
H4-2	운동 몰입 → 진로변경의도	-.391	.092	-5.791	.000	채택

* $p < .05$, ** $p < .01$, *** $p < .001$

은 선수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대학 운동선수의 내용적 경력정체지각과 선수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beta = -.095$, $t = -1.301$) “내용적 경력정체지각은 선수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대학 운동선수의 구조적 경력정체지각과 운동 몰입의 경로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eta = -.561$, $t = -3.034$) “구조적 경력정체지각은 운동 몰입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1은 채택되었고, 대학 운동선수의 내용적 경력정체지각과 운동 몰입도 경로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eta = -.192$, $t = -8.100$) “내용적 경력정체지각은 운동 몰입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2도 채택되었다.

한편, 대학 운동선수의 구조적 경력정체지각과 진로변경 의도는 경로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eta = .342$, $t = 4.916$) “구조적 경력정체지각은 진로변경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3-1은 채택되었으나 대학 운동선수의 내용적 경력정체지각과 진로변경의도는 경로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beta = -.093$, $t = -1.4648$) “내용적 경력정체지각은 진로변경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

설 3-2는 기각되었다.

끝으로 대학 운동선수의 선수스트레스 및 운동 몰입이 진로변경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선수스트레스와 진로변경 의도는 경로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eta = .371$, $t = 6.239$) “선수스트레스는 진로변경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4-1은 채택되었고, 대학 운동선수의 몰입과 진로변경 의도도 경로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eta = -.391$, $t = -5.791$) “운동 몰입은 진로변경 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4-2도 채택되었다.

IV. 논의

본 연구는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 지각이 선수스트레스, 운동 몰입 및 진로변경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고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구조적 정체)지각은 선수스트레스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적 경력정체가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구대일, 2017; 박지원, 2019; 조승좌,

2018; 전창욱, 이대용, 김선근, 2018; McCleese, Eby, Scharlau & Hoffman, 2007) 결과와 일치한다. 대학 운동선수가 지각하는 구조적 경력정체가 심해질수록 운동수행과 경기, 운동부의 환경과 지원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운동선수로서의 대우, 운동부 내에서 성장가능성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경우 운동부 소속감과 연대감이 낮아지고 진로문제와 운동기량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진 결과라 사료된다.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지각은 운동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하고 동기부여 및 욕구, 운동만족의 감소는 불성실한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적인 현상은 운동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운동부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직차원의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경력정체가 선수뿐만 아니라 운동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볼 때 조직 차원에서의 관리 및 지원은 선수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고 운동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차후 조직차원에서의 경력관리 및 지원에 대한 매개효과 혹은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운동선수의 경력정체, 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후속연구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구조, 내용) 지각은 선수의 운동 몰입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력정체 지각이 높을 경우 개인은 좌절하고 따분함을 느끼며, 자신의 일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떨어뜨리며(고정

아, 김희영, 2018), 경력정체를 지각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성장 정체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몰입을 저하시키게 된다(곽대영, 2013; 박혜영, 2014; 현영섭, 2010)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경력정체에 대한 지각은 운동 몰입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선수를 지도 및 관리하는 지도자는 선수들의 경력정체지각 여부를 확인하거나 경력에 대한 정체감을 완화시킬 만한 상담 및 동기부여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대해 정석과 홍아정(2017)도 개인이 직무에 대해 책임감과 도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김태성과 허찬영(2014)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구조적 경력정체와 몰입, 내용적 경력정체와 몰입 간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냈다. 결국 대학 운동선수가 운동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각할 수 있도록 지도자는 선수와의 상담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구조적 경력정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운동선수가 개인적으로 도전적인 운동수행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아실현 욕구 충족 기회를 제공하여 내용적 경력정체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구조적 정체)지각은 진로변경의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경력정체와 진로변경의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대학 운동선수의 진로변경의도를 일반 조직 구성원의 경력정체와 이직의도 및 경력변경의도와 관련하여 함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조직구조상의 경력정체가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고정아, 김희영, 2018; 박경환, 2011; 이기은, 박희일, 2001; 이주희, 이수범, 2020; Tremblay & Rogers, 1995; Davenport & Russell, 1994) 결과와 일치한다. 운동부 내에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생선수는 경기력이 유지되고 향상되어야 경력정체에 대한 지각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압박 등으로 인해 진로변경에 대한 의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곧 선수의 경력정체지각이 자신의 진로변경의도에 중요한 선행요인이며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진로변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 검증과 조절역할 변수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진로변경을 예측하고 경력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력관리나 경력개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고정아와 김희영(2018)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조직 상황에 맞는 다양한 경력개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경력전술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김유미, 강영실, 2013). 실례로 경력정체지각이 높은 학생선수에게 적합한 과제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력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으로, 결국 학생선수의 역량증진이 궁극적으로 운동부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Ramaswami, Carter, & Dreher, 2016 재인용).

한편 김한범과 권순용(2013)의 연구에서 대학축구선수의 부상경험은 부상선수로서 팀 내 역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주변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운동부 조직 내 구조적 정체가 부상선수에게 심리적 제약을 가하게 되고 결국 진로변경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결과를 통해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대학교와 지도자는 학생선수 경력정체 지각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선수들의 경력정체 지각은 본 연구결과와 같이 진로변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경기력과 상급학교 진학, 실업팀 입단으로 선수로서의 삶만 강조하는 우리나라 전문체육 육성 시스템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운동만 전념한 학생선수들이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자기 관리 없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결국 체육인을 사회에 방치하는 것이며 체육과 학생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뿐이다.

넷째, 대학 운동선수의 선수스트레스와 운동 몰입은 진로변경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대학 운동선수의 선수스트레스는 진로변경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조직에서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부정적 조직태도와 행동을 유발한다(김기영, 하재만, 이상권, 2015; 김영화, 전희원, 2009; 김형일, 2017; 전창석, 유영진, 2012). 따라서 직업적으로 전문 운동선수를 준비하는 대학의 선수들이 자신의 직무인 운동수행 등에서 스트레스를 인식한다면, 일반 조직학에서의 이직의도와 유사하게 자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변경할 의도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선수가 인식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관리함은 물론, 스스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어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운동선수의 운동 몰입은 진로변경 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몰입이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Decoinck & Bachmann, 2005; Hollingworth & Valentine, 2014)와 유사하다. 팀이나 조직에 몰입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애착을 갖고 근속하고자 하는 욕구의 발산이며, 동시에 자신의 일에 대해 도전하거나 책임감을 갖는 긍정의 신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 몰입한다는 것은 선수로 하여금 해당 팀이나 운동부에 헌신하고 집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팀을 지도하는 코치진이나 팀 운영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대학 운동선수들은 재학기간 자신의 운동기량을 향상시키고 보다 높은 성과를 창출하여 대학 이후 실업팀으로 진출하거나 더 나은 자신의 진로를 계획한다. 대개의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운동기량 등이 정체된다고 인식하면 실업팀 선수는 팀 내 입지와 전과 달라진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여 다른 팀으로 이적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 운동선수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타교로 옮기거나 혹은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거나 극단적인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이를 감소시키거나 완화하지 못할 경우, 운동선수의 진로에서 다른 진로방향으로 변경할 의도가 높아진다. 결국 스트레스의 강도가 심해지거나 대처가 어려운 경우 운동선수 중도포기, 체육 이외의 다른 진로로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함의함에 살펴볼 것은 최근 대한체육회는 운동선수의 진로교육과 취

업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e진로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e진로지원센터는 진로교육, 상담, 멘토링 등을 통해 운동선수의 진로전환과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혹은 전환한 선수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즉, 운동을 수행하며 경력정체를 경험하게 될 혹은 경험하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력정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을 수립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여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력정체의 경험적 자료와 정책적 함의를 통해 현장에서 환류 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지각이 선수스트레스, 운동 몰입 및 진로변경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대학 운동선수의 구조적 경력정체지각은 선수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대학 운동선수의 구조적 정체와 내용적 경력정체 지각은 운동 몰입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대학 운동선수의 구조적 경력정체는 진로 변경의도에 부분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대학 운동선수의 선수스트레스는 진로 변경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선수의 운동 몰입은 진로변경 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대학 운동선수가 인

식하는 경력정체가 선수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운동 몰입을 저하시킴을 상기하여 보다 실제적인 선수 지도 및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운동부를 보유한 대학에서는 단순히 감독과 코치에게만 선수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선수의 진로 및 생활관리를 도울 수 있는 매니저의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수들이 자신의 경력정체를 지각하거나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또 운동에 몰입하지 못하게 될 경우, 운동선수로서의 성과보다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선수관리의 체계성이 곧 팀 운영에 안정성을 담보함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와 연구진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먼저,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지각은 선수스트레스, 운동 몰입, 진로변경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지도자는 그동안 경기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모든 문제를 지도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부의 운영과 선수 개인의 진로발달에 적합한 정책적 접근이 선행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본 연구가 수행됨에 선수가 인식하는 경력정체는 기존 조직행동에서 사용되는 척도를 토대로 조사되는 한계가 있다. 이는 운동선수의 경우도 자신의 운동수준, 운동부의 형태와 시장논리에 따라 천차만별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 조직과 동일하게 인식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발전적 차원에서 선수들이 인식하는 경력정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정아, 김희영(2018). 종합병원 간호사의 경력정체, 경력계획, 사회적 지원과 이직의도와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24(1), 97-106.
- 곽대영(2013). 경력정체 지각이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서울소재 BSP 여행업체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관광연구저널**, 27(4), 137-151.
- 구대일(2017). **호텔 직원의 경력정체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개인-조직 적합성과 LMX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 김계수(2007). **AMOS 7.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 김기영, 하재만, 이상권(2015). 역할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 **관광연구저널**, 29(7), 181-195.
- 김택진(2009). 한국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스포츠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18(3), 525-536.
- 김미선, 정지혜, 양희연(2014). 여자프로농구 선수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탐색.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8(3), 87-99.
- 김범준(2016). **대학운동선수들의 스트레스와 탈진의 관계에서 정소조절 및 스트레스 대체의 중재효과 검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성덕(2018). 공공 스포츠조직의 침묵현상과

- 조직냉소주의 및 조직이탈행동의 관계: 배경변인의 다집단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3(2), 109-122.
- 김성덕(2019).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 조직 종사자의 직종에 따른 인사 분류체계 인식과 조직반응(EVLN)의 차이.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7(2), 175-189.
- 김영화, 전희원(2009). 호텔종사원의 직무특성과 직무만족, 경력몰입, 이직의도 및 경력변경의도와의 관계 연구. **관광연구**, 24(3), 65-86.
- 김유미, 강영살(2013). 중소병원 간호사의 경력정체, 자기효능감, 직무배태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10), 5078-5090.
- 김태성, 허찬영(2014). IT기술인력의 경력정체가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경력계획의 조절효과.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1-16.
- 김한범, 권순용(2013). 대학축구선수 부상경험 의미 탐색.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6(1), 107-124.
- 김형일(2017). 특급호텔 조리종사원의 근무환경이 직무스트레스 및 경력변경의도에 미치는 영향 - 인천특급호텔을 중심으로 -. **호텔리조트연구**, 16(4), 5-22.
- 박경환(2011). IT서비스 기술인력의 경력정체가 경력만족 및 경력변경의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9(4), 115-130.
- 박지원(2019). **경력정체와 LMX,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간 관계성 연구 :-외식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 박혜영(2014). 글로벌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경력정체, 경력몰입, 이직의도의 구조적관계. **e-비즈니스연구**, 15(4), 405-424.
- 서원식, 김성덕(2015). 배드민턴 지도자의 공정성이 선수 침묵, 선수 만족 및 팀 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3(4), 51-64.
- 서재하(2012). 스포츠 조직에서의 경력정체와 직무소진, 이직의도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8, 331-345.
- 이기은, 박희일(2001). 여행업 종사자의 경력정체 지각이 지식향상노력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경영학회지**, 2(1), 111-131.
- 이병관(2008). 스포츠시설 종사자의 경력정체지각이 직무 및 조직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3(3), 117-128.
- 이순표, 김영수, 이상돈(2008). 축구선수들의 스트레스 요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7(4), 553-563.
- 이주희, 이수범(2020). 개인적, 조직적 요인이 경력정체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 경력정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9(1), 113-131.
- 장경로, 김태희(2009). 스포츠경영 업무 종사자들의 경력정체가 직무몰입과 조직몰입, 그리고 반생산적 과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8(6), 335-346.
- 전창석, 유영진(2012). 호텔 종사원의 내부마케팅,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와의 관계. **관광연구저널**, 26(3), 267-285.
- 전창욱, 이대용, 김선근(2018). 경력정체,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 이직의도 및 조직지원 간의 구조적 관계: 다국적기업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5), 53-62.
- 정석, 홍아정(2017). 경력정체, 경력몰입, 네트워킹행동과 조직몰입 간 구조 관계. **HRD**

- 연구, 19(1), 129-157.
- 조승좌(2018). **항공기 객실승무원의 경력정체가 직무스트레스, 직무태도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A항공사 승무원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 최진혁(2012). **체육행정조직의 경력정체와 구성원의 직무만족, 경력몰입, 경력변경의도의 구조적관계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현영섭(2010). 경력정체와 경력계획 간의 관계에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및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 **HRD연구**, 12(2), 45-65.
- 홍세희(2001).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llen, N. J. & Meyer, J. P.(1990),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 1-18.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445-455). Newbury Park, CA : Sage.
- Davenport, L. A., & Russell, J. E. A.(1994).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lateauing and job attitud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Dallas, Texas.*
- DeConinck, J., & Bachmann, D.(2005). An analysis of turnover among retail buyer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8(7), 874-882.
- Gooley, Toby B.(2001). How To Keep Good People. *Logistics Management & Distribution Report*, 40(1), 55-60.
- Hollingsworth, D., & Valentine, S.(201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tinuous process improvement orienta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y & Reliability Management*.
- Kline, R. B.(1998).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 McCleese, C. S., Eby, L. T., Scharlau, E. A., & Hoffman, B. H.(2007). Hierarchical, job content, and double plateaus: A mixed-method study of stress, depression and coping respon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2), 282-299.
- Ramaswami, A., Carter, N. M., & Dreher, G. F.(2016). Expatriation and career success: A human capital perspective. *human relations*, 69(10), 1959-1987.
- Tremblay, M., & Roger, A.(1993). Individual, familial and organizational determinants of career plateau. *Group & organizational Management*, 18, 411-435.
- Tremblay, M., & Rogers, A.(1995). Individual, familial, and organizational determinants of career plateau.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18(4), 411-435.
- Tucker, L. R., & Lewis, C.(1973). The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논문투고일 : 2020년 7월 14일

논문심사일 : 2020년 7월 22일

게재확정일 : 2020년 8월 20일

ABSTRACT

Effects of Career Plateau of university athletes on Athlete stress, Exercise immersion, and Career Transition Intention

Kim, Sung-Duck(Baekseok University)•

Choi, Young-Jun(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lateau, athlete stress, exercise immersion and career transition intention of university athlete.

For such purpose, university athlete in sports education facilities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were selected as a population, from March 2020 to May 2020. A total of 340 Athlete in 3 university were selected using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lso, to verify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relevant variables, CFA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undertaken, and to verify hypothesis, SEM verification and path analysis were carried ou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areer plateau of university athlete affected their stress and immersion. Second, the factor affected their career change intention partially. Lastly, the athlete stress and exercise immersion of university athlete affected their career change intention. In conclusion, Stable team management and efficient team revitalization can be expected through the career management of university athlete.

Key words : career plateau, athlete stress, exercise immersion, career transition intention